

Advertisement

문화 문화일반

[현장] 데뷔 23개월 만에 도쿄돔 달군 뉴진스, 월드투어 기대감 키웠다

일본 팬미팅 '버니즈 캠프'

기자 서정민

수정 2024-06-28 11:47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5:43 ▶ 🔊



그룹 뉴진스가 26~27일 일본 도쿄돔에서 팬미팅 '버니즈 캠프'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여도어 제공

“어제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월드투어 전에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27일 저녁 일본 도쿄돔, 민희진 여도어 대표가 공연을 기다리는 취재진에게 다가와 말했다. 전날 이곳에서 그룹 뉴진스가 팬미팅 '버니즈 캠프' 첫 공연을 마친 터였다. 아쉬움이 전혀 없는 어제가 있겠냐마는, 적어도 이날 공연 뒤였다면 민 대표의 말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전날의 경험을 자양분 삼아 그 짧은 새 진화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둘째 날 무대의 포문을 연 건 프로듀서 이오공(250)의 디제잉이었다. 몽환적인 사운드와 함께 무대 뒤 초대형 전광판에 환상적인 비주얼 아트가 펼쳐졌다. 뉴진스 히트곡을 여럿 탄생시킨 장본인답게 낯선 사운드 속에 낯익은 뉴진스 노래의 향취를 흠뻑렸다.

어떤
하기
들이

[사설]
통령, 총

뉴스룸 P

숨진 41살
샘 주63

박지성 “
구 더 잘했
정 논란 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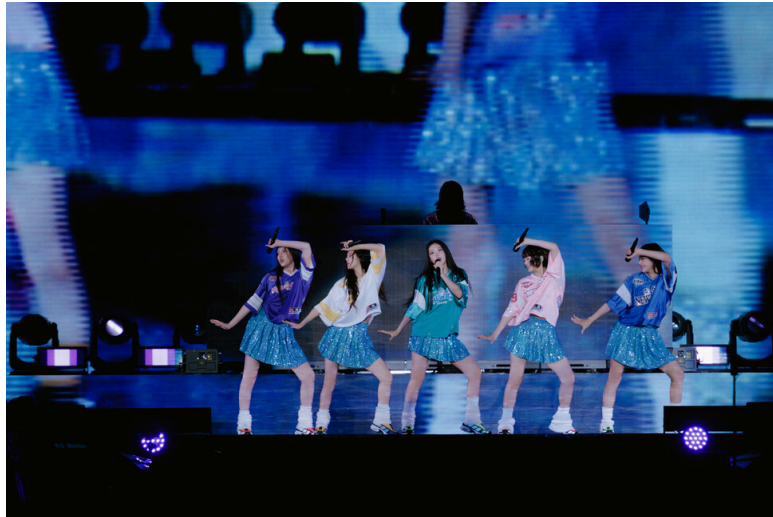
막말 의사
록...” “미
상 표현의

Advertisement

딸 영자

아리설

“아라



그룹 뉴진스가 26~27일 일본 도쿄돔에서 팬미팅 '버니즈 캠프'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어도어 제공

곧이어 뉴진스 멤버들이 첫 곡 '어텐션'을 부르며 등장했다. 2022년 데뷔 미니앨범 첫 번째 트랙으로, 뉴진스 신드롬의 시작점이 된 노래다. 그때도, 이날도 노래 제목처럼 단숨에 '주목'을 끌었다. 발등 부상으로 그동안 빠졌던 막내 혜인까지 함께한 5인조 완전체였다. 도쿄돔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울렸고, 응원봉이 형형색색으로 물결쳤다.

이어진 곡 '쿠키'에선 관객들의 추임새와 '떼창'이 가세했다. “달콤한 맛만/ 디저트만 만” 대목에서 관객들은 “맛만”과 “만 만”을 구령처럼 목이 터져라 외쳤다. 남자들의 굵은 목소리가 유난히 컸다. 이날 관객 비율은 남자가 60~70%는 돼 보였다. 대부분 젊은 층이었으며, 간혹 머리가 희끗한 중장년 관객도 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그룹 뉴진스가 26~27일 일본 도쿄돔에서 팬미팅 '버니즈 캠프'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어도어 제공

익숙한 노래들을 새롭게 들려주고 보여주는 시도가 잇따랐다. '허트'는 어쿠스틱 기타, 베이스, 건반, 드럼의 단출한 밴드 라이브로 담백하게 풀어내 색다른 느낌을 줬다. '슈퍼 샤이' 때는 무려 110명의 댄서들이 무대로 쏟아져 플래시몹을 하는 장관이 펼쳐졌다.

미공개곡을 최초 공개하기도 했다. 하니와 다니엘은 듀엣으로 미발표곡 '홀드 잇 다 운'을 처음 선보였다. 이전 곡들과 달리 강렬한 랩이 인상적이었다. 다니엘은 솔로 무대에서 자작곡 '버터플라이스 (위드 유)'를 최초로 들려줬다.

Advertisement

다른 멤버들도 솔로 무대로 평소와 다른 매력을 뽐냈다. 민지는 요즘 일본에서 떠오르는 신예 싱어송라이터 바운디의 히트곡 '무희'를 커버해 큰 박수를 받았다. 하니는 일본 인기 가수 마쓰다 세이코의 1980년 히트곡 '푸른 산호초'를 불러 도쿄돔을 들썩거리게 했다. 전날 무대 영상이 에스엔에스(SNS)에 퍼지며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큰 화제가 된 노래다. 헤인은 영국에서 활동 중인 일본 싱어송라이터 리나 사와야마와 듀엣 무대를 선보였다. 일본 대중음악의 과거와 현재가 한국에서 온 케이(K)팝 신성들과 접속하는 순간이었다.



그룹 뉴진스의 하니가 26~27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팬미팅 '버니즈 캠프'에서 솔로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어도어 제공

공연 중간중간 멘트를 할 때는 재밌는 광경이 펼쳐졌다. 한국말과 일본말을 자연스럽게 섞어 썼다. “왜 이렇게 귀엽지? 어떡해? 가와이데스” 하는 식이었다. 베트남계 오스트레일리아인 하니는 영어를 섞기도 했다. 관객들은 찰떡같이 알아듣고 환호했다. 케이팝에는 국경과 언어의 장벽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증명한 상징적 장면이었다.

일본에서의 첫 본격 무대인 만큼, 지난 21일 발표한 일본 데뷔 싱글 ‘슈퍼내추럴’과 ‘라이트 나우’, 한국 싱글 ‘버블검’의 일본어 버전을 후반부에 주요하게 배치했다. 본공연 마지막 곡 ‘디토’와 앙코르 곡 ‘에이에스에이피’(ASAP)까지 모두 22곡을 소화한 뒤 2시간30분간의 공연을 마쳤다.

헤인은 “언니들이 저 없는 동안 제 자리를 메꿔주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며 눈물을 쏟았다. 멤버들이 다같이 열싸안자 관객들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응원했다. 민지는 “네 명에서 활동하는 동안 헤인이 생각 많이 났다.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했는데, 헤인도 응원해줘서 고맙웠다”고 말했다. 다니엘은 “어제와 오늘 믿기지 않을 만큼 버니즈 여러분이 큰 사랑을 주셔서 꿈만 같다. 오늘 잠이 안 올 것 같다”며 감격했다.

Advertisement



그룹 뉴진스가 26~27일 일본 도쿄돔에서 팬미팅 '버니즈 캠프'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어도어 제공

이번 팬미팅에는 이틀간 9만1200여명이 들었다. 뜨거운 관심으로 일찌감치 매진돼 시야제한석까지 열었다. 전날 공연에는 홍콩 배우 량차오웨이(양조위)가 찾았다. 민 대표는 “뮤직비디오(‘쿨 워드 유’)를 같이 작업한 게 인연이 돼 초대했는데, 감사기도 와주셨다. 오늘(6월27일)이 생일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도쿄돔은 인기 최정상 스타만 설 수 있는 꿈의 무대다. 뉴진스는 일본 이외 아티스트 중 데뷔 후 최단 기간인 1년 11개월 만에 도쿄돔에 입성하는 기록을 썼다. 다음 관문은 내년 월드투어다. 초대형 글로벌 팝스타로 발돋움할 날이 머지않은 듯하다.

도쿄/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

관련기사



뉴진스, 일본어 곡으로 한·일 음반 차트서 동시 1위 진기록

2024-06-23



뉴진스·BTS의 K하트...미국 젠지 세대 “시크하다”

2024-06-11



뉴진스 ‘하우 스위트’ 빌보드 글로벌 7위...통산 5번째 톱10

2024-06-04



방시혁-민희진 집안싸움에도...뉴진스, 빌보드 ‘21 언더 21’ 꼽혀

2024-06-01



자세 낮춘 민희진 “뉴진스 위해 한수 접겠다...그만 싸우자”

2024-05-31

서정민 기자

음악과 영화 맛집을 사랑하는 기자.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서 얻은 즐거움과 기쁨을 여러분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

뉴진스에 들썩인 도쿄돔...일본 속 ‘K팝’ 더 젊어지고 세졌다

하니의 ‘푸른 산호초’...40대 추억과 MZ 뉴트로의 ‘완벽 동기화’

인거대 후원외원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후원제소개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아요 2 슬퍼요 0 화나요 0 감동했어요 0 응원해요 0

전체 댓글 보기

Advertisement

오늘의 주요기사




현재 접속자가 많아
서비스 접속 대기 중입니다.

접속 순서가 되면 자동으로 접속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탄핵' 국민청원 72만 넘
어...접속 폭주에 대기 2시간



저축은행 15곳 신용등급·전망 하
향...부동산 PF 여파



일본, '전쟁할 수 있는 나라' 가속
화...미국에 기대 '금기' 깨뜨려



'2인' 방통위, 2017년 법
'3인' 의결도 "정당성 논란"

Advertisement

많이 본 기사

전체 정치 사회 경제 국제 문화 오피니언

1 [단독] 검찰, 이재명 캠프 정책담당자 '선거법 위반' 공범 조사



입력 시기가 되면 자동으로 검색되거나
광해되어 주시가 바랍니다.

3 [단독] 미국 미술관이 내건 이중섭·박수근 그림 4점 다 가짜였다

4 부산이 사라진다고?...광역시 중 첫 '소멸위험지역'

5 '터지면 열폭주' 리튬전지, 미국은 연기 날 때부터 감지한다

6 딸 영정도 없는 분향소에서 "폭발 위험도 모르고 일하다니..."

7 '9년 솔로' 수컷 뱀 호날두, 새끼 낳았다는데...

8 숨진 41살 쿠팡 기사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밤샘 주63시간 노동

9 '윤석열 탄핵안' 국민청원 동시접속 1만명 이상...63만명 동의

10 [단독] "쿠팡, 배송기사 명절수당 100만원 떼먹어"...단가 3배라더니

서비스 전체보기 ▾

회사소개 신문구독 광고안내 채용

고충처리 고객센터 저작권 회원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지적재산보호정책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한겨레 가족

한겨레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